

병무청, 심리검사로 발견한 청년 마음건강 위기... 상담·치료와 회복까지 잇는다

- 병역판정검사를 청년 정신건강 지원의 접점으로 활용
- ‘마음있다’로 기업 사회공헌 자원 연계, 경제적 취약 청년 치료 지원

-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병역판정검사에서 확인된 정신건강 위험 신호가 실질적인 상담과 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민간과 협력해 청년 마음건강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병역판정검사는 대다수 청년 남성을 직접 만나는 중요한 접점이다. 병무청은 매년 19세 청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임상심리사가 참여하는 심리검사와 전문 평가를 실시하고, 도움이 필요한 청년을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하고 있다.
- 병무청은 이러한 검사체계를 바탕으로 위험 신호를 발견하는 데서 나아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상담과 치료를 미루거나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확인된 청년에게 최대 8회의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심리상담 바우처’를 연계·지원하고 있다. 본인부담률은 소득수준 등에 따라 면제부터 최대 50%까지 차등 적용된다.
- 내년부터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게 실시하는 기존 심리검사에 국가정신건강검진 항목인 우울증 검사(PHQ-9)와 조기정신증 검사(CAPE-15)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정신건강검진 체계

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검사 결과가 상담·진료·치료로 이어지는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 치료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치료가 필요한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의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 아울러 병무청은 제도 마련 전에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기업과 협력하는 ‘마음있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 ‘마음있다’는 병무청이 치료가 필요한 청년을 발굴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기업의 사회공헌 자원을 연결해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미루는 청년들이 적기에 도움을 받고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힘을 모으는 데 의미가 있다.

○ ‘마음있다’ 프로젝트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 매칭 플랫폼 ‘바로잇’ 운영 담당자(☎ 02-2077-3954, 3951)에게 연락하면 참여 방법과 지원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 홍소영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는 청년의 마음건강 위기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도움으로 연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검사에서 확인된 위험신호가 상담과 치료,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이어 “청년들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고 건강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

담당 부서	병역자원국 병역판정검사와	책임자	과 장	강진호 (042-481-2913)
		담당자	사무관	서민정 (042-481-2916)

[참고 1] 「모두의 연결」, 바로잇 활용 “마음 잇다” 프로젝트 (병무청)

○ (추진배경)

- 병무청은 매년 만 19세 남성 전원을 대상으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심리검사를 통해 자살위험군 및 정신건강 위험신호를 조기에 발견
 - 그러나 위험군을 발견하더라도 상담·치료·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가 미흡하여 치료가 필요한 청년이 적기에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존재
 - 이에 국가 치료지원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 전까지 복지부의 ‘바로잇’ 플랫폼과 기업 사회적 공헌을 연계, 치료가 필요한 병역의무자의 조기 치료와 일상 회복을 지원
- * ‘정신건강’ 사유 7급자에 대해 치료 지원 및 비용의 국고부담 근거 마련(강선영·김병주의원 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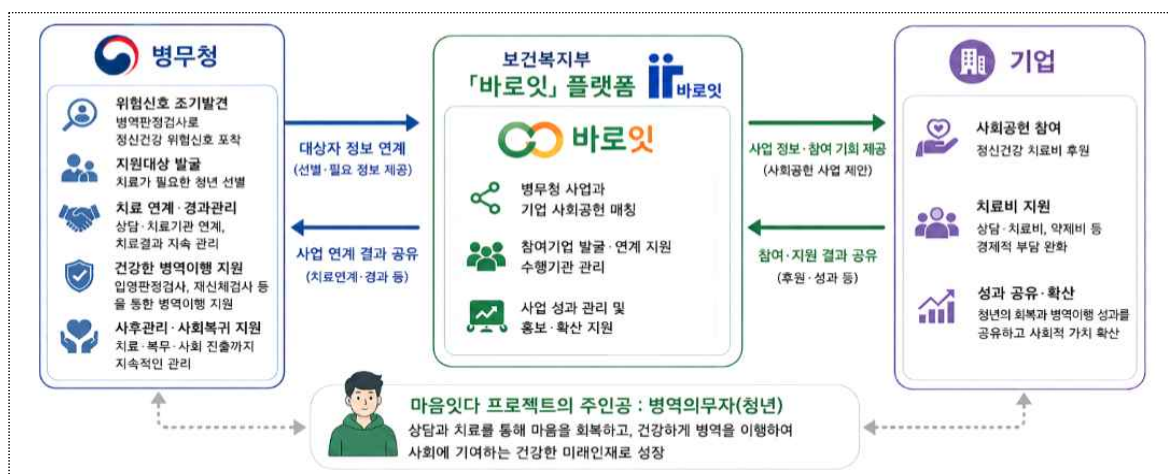
○ (사업개요)

- 사업명 : 정신건강위험군 병역의무자 치료 지원 **“마음 잇다”** 프로젝트
- 사업목적 :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건강 위험신호가 확인된 청년에게 기업의 사회공헌과 연계, 정신건강 의료기관 치료 기회 제공으로 건강한 병역이행과 일상 회복 지원
- 사업기간/지원인원 : '26. 9월~ / 연간 5,000명(1인당 최대 100만원)
- 지원방법 : 「바로잇」 활용, 치료비 확보 및 정신건강 의료기관 치료 지원
- 지원대상 : 병역판정검사 결과,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로 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의학과 7급 재신체검사자 * 소득기준 제한없으나 경제적 약자 우선 지원
- 지원내용 : 정신건강 의료기관 치료비용(진찰료·상담료·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 목표후원금/모금기간 : 32.6억원 / '26. 9~12월 * '26. 9. 21. 사업공고

○ (사업문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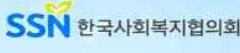
- 전화 : 02-2077-3954, 3951
- 이메일 : boroit@ssnkorea.or.kr

【 「바로잇」 활용 “마음 잇다” 프로젝트 협업체계 】



[참고 2] “마음 잇다” 프로젝트 포스터





오늘도,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청년이 있습니다.

아픈 마음이 나라사랑하는 마음까지 가리지 않도록

마음잇다 프로젝트

병무청은 위험신호를 발견하고,
기업과 함께 청년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합니다.

병무청이 먼저 발견합니다

병역판정검사에서 청년의 마음 위험신호를 조기에 포착합니다.



매년
23만명
청년과의 만남



19~30세 남성 자살자의
96%
병역판정검사 수검
(최근 5년)



병역판정검사에서
자살 및 정신건강
위험신호 확인 가능

**발견에서
치료로,
치료에서
회복으로**
병무청이 함께합니다.



기업이 함께 연결합니다

기업의 따뜻한 참여가 청년의 치료와 회복의 기회를 더합니다.



치료비 지원
청년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실천



민관협력 우수사례
정부 · 지자체와 연계한
지속가능한 협력 모델



사회적 가치 창출
건강한 청년,
건강한 사회로의 투자



ESG 가치 강화
기업의 진정성 있는
사회적 책임 이행

프로젝트 핵심 내용

01 지원대상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로
치료·경과관찰 필요
7급 재신체검사자

02 지원내용
정신건강 의료기관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진찰료·상담료·약제비

03 지원규모
연간
5,000명

04 지원한도
1인당 최대
100만원

05 기업후원 목표
모금
32억 6천만원
(초기 목표)



병역의무자의 건강한 마음이
청년의 내일을 지키는 힘입니다.
지금, 마음잇다에 동참해 주세요.

바로잇을 통해
사업 참여하기 →



문의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센터 02-2077-3954(3951)

마음이 건강한 사회,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마음잇다 | 청년의 내일을, 국가의 내일로